'사랑'으로 뜨거운 '여름 연방'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신들린 퍼팅 박인비 우승감격

식중독 걱정없는 여름나기! p/14

기업 월드컵 마케팅 열기 '후끈'

209개 회원국 100조원 시장 놓고 홍보전 치열

파트너 현대·기아차 56개국서 '월드컵 사승회'

통신·유통업체 할인·경품 공세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잡아라."

나흘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시장에 기업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월드컵은 올림픽 못지않은 세계적인 축제다. 경제적 가치면에선 월드컵이 월등하다. FIFA 회원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204개국)와 국제연합(UN·193개국)보다 많은 209개국이다. 실제 지난 2002 한일월드컵 공식파트너였던 KT는 400억원 정도를 투자해 100배가 넘는 5조원 이상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 남아공월드컵'의 경우 FIFA의 공식 파트너 6개사와 스폰서 8개사가 제휴해 쏟아부은 마케팅 비용만 20조원에 달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다국적 기업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80조원 가량의 비용을 썼다. 월드컵 마케팅 시장 규모만 무려 100조원을 넘어선다.

◆현대·기아차, 최대 수혜자 될까

국내 기업 중 '2014 브라질 월드컵'의 공식 파트너는 현대·기아차가 유일하다. 벌써부터 월드컵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10% 상승해 65억 달러(6조22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현대자동차는 독일 월드컵에서도 1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 96억달러(9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월드컵 공식 행사에선 현대·기아차의 차량만 사용된다. 출전 선수단의 경기장 이동이나 요셉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등 VIP들이 월드컵 행사에 참가할 때 이동수단으로 현대·기아차의 차량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부터 세계 56개국에서 '월드컵 사승회'를 여는 등 주요 판매 거점을 중심으로 월드컵을 활용한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를 마련해 브랜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 브라질 월드컵 홍보대사로 선정된 스페인의 이케르 카시야스 선수와 브라질의 히카르도 카카, 오스카 선수를 광고와 온라인 프로모션 등에 등장시킬 계획이다.

공식 후원사는 아니지만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삼성전자도 이번 월드컵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그 일환으로 7일(현지시간) 브라질 축구박물관에 65인치형 커브드 UHD TV 5대를 곡면으로 연결한 원형극장 형태의 커브드 UHD 갤러리 쇼케이스를 전시했다.

또 올해 브라질에 출시되는 TV에는 실제 축구경기장에서 보는 듯한 화면 색감과 사운드를 최적화하는 '사커모드'와 사커패널 등 특화 기능을 탑재했다.

◆통신·유통, 내수경기 활성화 지렛대 활용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효과를 확인한 통신업계도 2014 브라질 월드컵과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브라질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VIVO와 협력해 브라질에서 롱텀 에볼루션(LTE) 로밍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Korea! T로밍 쌈바 페스티벌' 이벤트를 마련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KT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전 경기 1등석 티켓 등 다양한 경품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박지성 선수를 모델로 기용해 마케팅에 나섰다.

유통업계도 4년만에 찾아온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이번 월드컵 기간에 올린다는 복안이다.

홈플러스는 매장 직원의 유니폼을 붉은악마 공식 티셔츠로 교체하고, 11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붉은악마 공식티셔츠(1만7900원) 2+1 행사를 열고 있다.

롯데슈퍼는 국가대표팀이 16강 진출시 16명에게 160만원, 8강 진출시 8명에게 800만원 등 총 1억원 경품을 내걸고 축제몰이에 나섰다.

최대 대목을 맞은 주류업계도 분주하다. 공식스폰서인 버드와이저는 '버드 걸 바 어택(Bud Girl Bar Attack)' 행사와 신촌·가로수길 등에서 도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공식 맥주인 오비맥주의 카스는 별도의 TV CF를 제작했다.

/정영일 서승희기자 sms@metroseoul.co.kr

정어리와 수구를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잠수부들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수중 응원 퍼포먼스를 펼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 제작차량 주간 주행등 장착 의무화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했다.

또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와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예방과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t@

"잘 부탁합니다" 첫 출근한 윤두현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이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경욱 대변인 등의 안내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늘 구멍' 같은 인사 검증

총리 후보군 있지만 기준 까다로와 지명 늦어져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인선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인사 검증'에 대한 청와대의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달 28일 사퇴한 지 9일로 13일째지만 9일 오전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총리 후보 검증 작업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 인사청문회라면 통과 못할 것"이라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분 중 많은 사람이 검증 과정이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 언급대로라면 그동안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본인들이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16~21일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함에 따라 늦어도 금주 중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금주 내 후임 총리 지명에 이어 지명자와 정홍원 총리간 협의를 통해 정 총리가 신임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장관 지명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시간표상으로 후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내달 초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신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 시점으로 치면 이 경우 8월 초까지 상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리 지명자가 현 총리와 협의해 사실상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과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채신호기자 mkim@metroseoul.co.kr

달콤한 말로 끝나지 않길

기자 수첩
서승희 <경제산업부 기자>

통신업계가 남발하는 '다양한 혜택', 획기적인 상품'은 믿어도 되는 걸까? 답은 아쉽게도 'No'.

먼저 SK텔레콤은 월드컵 기간 동안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힘내라 Korea! T로밍 썸박 페스티벌'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다양한 추가 혜택에는 월드컵 기간 중 브라질을 방문해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 Pass'를 이용하면 초고속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됐다. 해당 요금제는 전세계 주요 123개국 로밍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 9900원의 기본요금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되려면 6월 13일부터 7월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야 한다. 또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 Pass'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이어야 한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3일 KT는 집전화 통화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olleh 집전화 무한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상품을 자세히 보면 최대 월 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업 홍보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다. '고객 중심'과 '신뢰'라는 말이다. 말과 행동의 상호작용 속에서 신뢰가 싹튼다.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의 편법굳도 아름다운 모습이길 기대하는 건 과욕일까? 최소한 말만 보고 기대했던 고객들이 실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 원내대표 첫 주례회동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첫 주례회담을 열었다. 이날 회동은 전날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만나자"는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 원내대표가 "빨리 만나자"고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연합뉴스

대학생 군복무자에 9학점 부여 추진

"병사 80% 재학생 1학기 단축 가능" 형평성 논란도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차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훈기자

탈북자 13명 태국서 체포

태국에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북한을 탈출해 밀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13명을 북부 치앙라이에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중국과 라오스 등을 경유해 태국에 도착했으며, 다시 제3국으로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해당 공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희망에 따른 신병)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자신들이 희망하는 제3국행 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기자

뉴스&뉴스

개성공단 北 근로자 평균임금 5% 인상

●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5월분부터 5% 인상된다.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5월분부터 70.35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는 매월 초과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합쳐 평균 150달러 가량 받고 있다.

새누리, 7.14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

● 새누리당은 9일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7.1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에는 김수한 상임고문, 부위원장에는 김재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선관위원에는 이명수·홍일표·권성동·김세연·신동우·경대수·권은희·이종훈·문정림·이자스민 의원,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등이 임명됐다.

朴대통령,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17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박 대통령은 수도 타슈켄트 방문 기간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 대표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18일에는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

이어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우리 기업 250여 개가 진출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한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찾아 20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만찬을 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참사 이제부터 '단죄'

37명 입건 30명 기소…오늘 선원들 첫 공개변론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9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총 3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가운데 27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선사인 청해진해운 7명, 화물 하역 업체 2명, 운항관리자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명장비 점검 업체 4명을 기소했다.

수사본부는 무리한 증톤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배가 급격하게 복원성을 잃고 침몰에 이르렀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여기에다 운항 관리와 허가 과정의 부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10일부터는 이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수사본부는 일부 인력이 공판팀(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새롭게 편성돼 공판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와 관련해서는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 기소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uh@metroseoul.co.kr

내가 최강 소방관 제27회 강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9일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개막한 가운데 구조 분야 최강 소방관을 가리는 경연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첫 재판 열릴 광주지법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법원 201호 법정에서 세월호 참사 사고의 첫 재판을 앞두고 9일 오전 법정이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털' 꿈꾸던 절도범 144회 범행끝에 덜미

인기만화 '대털'의 주인공처럼 수도권 일대의 부유층 거주지만 골라 턴 전문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42)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간 공범 6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일대 고급 빌라 및 아파트에 침입해 144차례에 걸쳐 21억6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동종전과만 10건인 이씨는 빈집털이로 1년을 복역한 뒤 2009년 9월 출소했으며, 이후 절도전과 8~21범인 전문 절도범들을 규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주로 저녁 무렵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배관을 통해 집안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장마철이 코 앞인데…

하천정비사업 예산집행 늦어 침수피해 우려

장마철 침수피해 주범인 소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공사지연과 이에 따른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9일 "올해 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은 2094억원"이라며 "정부는 1분기에 810억원, 2분기에 600억원 등 상반기에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소하천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실제 예산 집행액은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홍수 예방을 위해 사업을 발주한 방재청과 자치단체는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 마무리가 지연돼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사와 토지소유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올해 소하천정비사업 대상지는 377곳이며, 지난달 기준으로 142곳만 사업이 완료됐다.

방재청은 이달 말까지 올해 사업대상지의 70%인 256곳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은 "기재부와 농식품부에 국고 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해예방, 예산집행 목표달성, 민원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준기자 mkim@

우수마을기업에 8천만원

서울시가 성장 가능성이 큰 마을기업들에 2년간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 주도적으로 수익사업을 벌여 소득을 나누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형태의 '풀뿌리 기업'이다.

시는 심사를 통해 신규지원기업 23곳에 8억 3300만원, 연장지원기업 15곳에 3억 9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지원기업엔 어르신 바리스타를 육성하는 '내일은 청춘 바리스타', 결식아동 도시락 바우처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행복한밥상', 베이비부머의 체험학습을 돕는 '협동조합 점터' 등이 포함됐다.

/최영준기자

강남 전력 사용 강북의 5배

서울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발간한 '2013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구는 강남구였다.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곳은 서초구·영등포구·중구·송파구·강서구·마포구·구로구·성동구·종로구 등 순이었다.

지난해 강남구의 전력 사용량은 3256GW로, 2위인 서초구(2301GW)에 비해 1.4배나 많았다. 사용량이 가장 적은 강북구(637GW)보다는 5배 이상 많았다.

서울의 지난해 전력 총 생산량은 1966GW를 기록해 서울에서 소비되는 전력 4만6555GW와 비교할 때 전력자립률은 4.2% 수준이었다.

/조현정기자

'대화록 유출' 김무성 의원 무혐의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 의원을 제외한 김 의원과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조현정기자 jh@

방송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다음달 16일까지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방송대는 1학기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과를 중심으로 신·편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대는 이번 2학기 모집을 통해 총 22개 학과 총 8만4315명의 추가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생 모집은 3만3722명, 2·3학년 편입생은 5만593명이다.

입시전형에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2, 3학년 편입학의 경우 학년별 학력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 편입생의 경우 출신대학의 성적으로 선발하며, 단 외국학교 출신자 및 성적산출 불가자인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선발한다.

입학지원방법은 방송대 홈페이지(http://www.knou.ac.kr)에서 확인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6일까지다.

치아의 날 '치아의 날(구강보건의 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캠페인'에서 한 시민이 칫솔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4~5인실 입원료 건보 적용

복지부, 시행령 개정 9월부터 적용키로

그동안 6인실 병상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5인실 병상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 후 9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던 상급 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4~5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포함되면 전국 병원의 일반 병상 약 2만1000개가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은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된다. 또 추가로 지불해야 했던 4~5인실 상급 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 병상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으며 상급 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의 기본 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상급 종합병원이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된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의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홍지연기자 hong...@metroseoul.co.kr

인천 검암역 들어서는 KTX 9일 인천시 서구 검암역 역사에 운행중인 KTX가 들어서고 있다. 현재 시험운행 중인 이 KTX는 30일께 정식 개통되는 서울역~인천공항역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돈 받고 카드깡 눈 감아준 세무공무원

불법 영업을 무마해주고 카드깡 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국세청 산하 전·현직 세무 공무원 최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무서에서 카드사 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은 금천세무서와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던 2011~2012년 대규모 카드깡 조직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카드가맹점 개설과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등은 해당 카드깡 조직이 노숙자 명의 등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300여 개를 개설하는 동안 불법 행위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된 세무 공무원 3명 외에도 연루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성추행에… 절도에…

명문대 출신 40대 덜미

소위 명문대를 나온 40대들이 잇달아 강력범죄를 저질르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년간 강남·영등포 일대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강도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46)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부들이 집에 홀로 있는 낮시간대 문을 따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나 2차 시험에 떨어지자 공부를 접고 대기업 계열 복지재단에 입사한 경력이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버스에서 여대생 A(2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44)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경기에서 광진구로 가는 광역버스 안에서 A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 출신으로 시중 저축은행에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ydh@

'미네르바 비방' 네티즌 유죄 확정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비방한 네티즌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제 토론방에 수십차례에 걸쳐 박씨가 가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조현정기자

신림역 일대 '감성주점' 철퇴!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주점 둔갑… 단속 강화

서울 관악구는 신림역 일대에 들어선 '감성주점'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문을 연 업소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는 등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각종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단속이 어려운 시간대에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경찰·세무서와 협력해 단속에 나선 관악구는 신림역 일대 감성주점 1곳을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으로 적발해 고발했다. 또 감성주점이란 형태의 불법 업소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일반음식점 시설 기준이 미비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해 상급 기관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최신규 관악구 위생과장은 "감성주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지역에 감성주점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순기자 ssk.mk@

노인 폐렴 접종 어디서나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각 부처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생활불편과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과제 53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생활불편·민원제도 개선과제로는 ▲학생건강검진 결과 보호자에 직접 통보 등 생활안전 강화 분야 4건 ▲쌀 직불금 신청기준 완화 등 국민편의 향상 분야 7건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 4건 등이 뽑혔다. /윤다혜기자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개최

서울여자대학교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앞에서 제1회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휴먼아트스튜디오 - 지문 모여 예술 을 6~7일 양일간 개최했다. 서울여대 현대미술과의 교양수업 커뮤니티 아트 수강생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문 클로버'(사진) '지문 포스트' '지문 프로필' 등 '지문'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고시 준비생 무료 건강검진

서울시 관악구는 고시 준비생의 건강 관리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오는 12일 무료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 희망자는 검시 전 8시간 금식해야 하며 대학동주민센터 2층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버려진 원단 조각 재활용

서울시 강서구가 봉제 공장의 원단 조각 재활용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자투리 원단 재활용 수거 체계를 마련했다. 또 재활용 컨설턴트를 봉제 공장으로 주의, 사업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용산구, 계량기 정기검사

서울시 용산구가 30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과 증명용 계량기 5종이다. 검사 대상자가 보유한 저울을 갖고 해당 검사일에 영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된다.

metro HongKong

招遠殺人案網民大

metro Brazil

apreende 80 mil midos de ecstasy

마약 엑스터시 1000정 압수

브라질 경찰이 메쿠의 장물 거래를 적발해 물품을 모두 압수했다. 최근 쿠리치바의 아우투 보케이라오에서 두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의 장물 조사를 통해 쿠기 한 점과 탄약 100여 발을 발견했으며, 일약 형태의 마약인 엑스터시 1000정도 함께 압수했다. 경도 쇠도 당담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마약은 약 450만 헤알(약 20억6500만원)의 가치를 지녔다.

metro Russia

РУДН показали ёгкие «лёгкие»

재떨이로 만든 '시꺼먼 폐'

모스크바 시내에 금연운동을 위한 폐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철제로 만들어진 폐 조형물 내부에 유리 재떨이 수십 개가 들어 있다. 조형물 설치를 의뢰한 드빅 칼라치키 레스토랑 매니저는 "재떨이는 드빅 칼라치키 레스토랑에서 실제 사용된 것"이라며 "공공장소 금연법이 발효된 후 사용되지 않는 재떨이를 모아 조형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metro France

stop au harcèlem

성추행 이제 그만! 여성 티셔츠 캠페인

프랑스 낭트에서 성추행 예방 홍보를 하는 여대생 단체가 호응을 얻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모두 '당신의 손이 내 엉덩이에 있다면, 내 손은 당신의 뺨에 있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있다.

올해 스물여섯살인 여대생 로라(Laura)는 자신의 친구 8명과 함께 '콜레르(Colère)'라는 협회를 소개했다. 이들은 성추행 예방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와 가방 판매 수익금을 캠페인 활동에 쓰고 있다.

로라는 "예전에 큰 길가에서 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일을 겪고 집에 돌아오면서 치마를 입은 걸 신경쓰고 있는 내가 너무 싫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일을 당하면 여자들은 보통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처를 안으로 숨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희롱을 한 남자에게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라는 "10년 전부터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가 굳어져왔다. 광고나 TV를 보면 여성은 하나의 상품으로 그려진다. 우린 이걸 바꿔야 한다. 같은 여성이지만 길거리에서 벗고다니는 여자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설된 콜레르 협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7000명이 넘는 팬이 모였다. 협회가 만든 티셔츠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에서도 12 유로(약 1만7000원)에 판매된다.

로라는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실 로랑 기자·정리=정리 번역기자

'미녀 석사'가 파는 오징어구이

여행 중 창업 결심 직장 나와… 사흘만에 특제소스 등 비법 전수 받아

최근 중국에서 '미녀 석사'가 석판 오징어구이 가게를 열어 화제다.

올해 27세인 리원쥔(李文君)은 우한중국지질대학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언론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던 중 여행을 갔다가 창업을 결심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오징어구이 매장을 개업했다.

닝샤 인촨시 중산공원 근처 오징어구이 매장에서 리원쥔은 땀범벅이 된 채로 손님을 맞느라 정신이 없다. 창업 이야기를 들은 손님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젊은 사람이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며 응원했다.

리원쥔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어머니는 오징어요리를 자주 해줬다. 그는 한번도 질리지 않고 항상 맛있게 먹었다. 지난 2월 청두 여행 도중 손님들이 길게 늘어선 오징어구이 매장을 본 그는 어머니가 해줬던 오징어구이를 떠올리며 창업을 결심했다.

지난달 리원쥔은 가족들과 함께 청두시, 충칭시, 우한시를 돌아다니며 석판 오징어구이의 재료, 요리법과 체인점 운영 상황을 조사했다. 부모님과 이모도 전망이 괜찮다고 판단했다. 체인점 가맹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자본금 20만 위안(약 3300만 원)을 마련했다.

오징어구이는 삶기, 얼음물에 담그기, 육수 만들기, 석판에 굽기, 양념 바르기 등 다섯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여기에 6가지 맛의 특제 소스가 곁들여진다. 핵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리원쥔은 동업자인 이모와 함께 청두의 실습매장에 갔다.

첫날 리원쥔은 주방에, 이모는 카운터에 배치됐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바쁜 매장 직원들을 이리저리 따라 다녔지만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는 매일 모든 직원들에게 음료수를 사며 웃는 얼굴로 가르침을 구했다. 처음에 냉랭했던 직원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다. 리원쥔은 "우리는 사흘 만에 기본 비법을 전수받았다. 산둥 매장 사람들은 일주일 먼저 왔는데도 우리가 떠날 때까지 배우지 못했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리원쥔은 위치 선정, 인테리어, 직원 채용 등을 한 달도 안돼 마무리 짓고 지난달 20일 가게 문을 열었다. 그는 "대학원생이 오징어구이를 팔면 안될 것 있나. 공부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활용해 열심을 갖고 경영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현재 리원쥔의 매장은 양질의 아르헨티나 오징어로 하루 매출 4000위안(약 65만 원)을 올리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9일)

코스피	1990.04 (-5.44)	코스닥	524.83 (+0.91)
금리(국고3년)	2.84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16.20 (-4.30)

뉴스&뉴스

환율 1020원선 붕괴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전 거래일보다 4.3원 떨어진 1016.2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기준 1020원선 아래로 하락한 것은 2008년 8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전국 주유소 12일 동맹휴업

● 전국 3000여 주유소가 12일 동맹휴업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7월 시행을 앞둔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방침에 반발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12일 1차 휴업을 연 뒤 상황에 따라 2차 휴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서울 61개, 경기도 365개, 인천 139개 등 수도권 555개를 비롯해 전국에서 3029개 주유소가 동참해 직영 업체를 제외하면 참여율 6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남녀 임금격차 OECD 최대

● 국내 남성과 여성근로자의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OECD통계를 근거로 남녀 전일제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격차를 조사한 결과 이같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9%로 자료가 있는 주요 2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일본(28.7%)보다 10%포인트 이상 큰 수치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헝가리로 3.9%에 그쳤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9
독자센터	(02)721-9809

2005년 1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 ...

LG전자 G3, QHD가 발목 잡나

발열·반응속도 문제 제기 잇따라…"펌웨어 통해 해소돼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3'가 출시 5일만에 판매량 10만대 돌파 기록을 세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발열·반응속도·배터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 G3는 QHD(2560X1440) 디스플레이를 앞세워 고해상도 화면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HD(1280X720)의 4배, 풀HD(1920X1080)의 2배 해상도를 구현해 더 작고 더 많은 픽셀로 세밀하게 표현한다.

외신들은 G3에 대해 "인간의 눈으로 풀HD와 QHD 화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확실은 정말 아름답다"고 호평했다. 카메라 또한 "레이저 오토 포커스 기능으로 호릿하거나 움직이는 환경에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호평을 받고 있는 QHD가 오히려 G3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QHD 패널 채택으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디스플레이나 AP가 소모하는 전력이 많아 발열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한 G3 스마트폰 이용자는 "G3를 사용하다보면 발열 문제로 인해 '휴대폰 온도가 높아 밝기를 제한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보게 된다"며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발열 문제로 성능이 저하될 우려 역시 제기됐다. 발열로 AP 성능과 안정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것.

배터리 문제 역시 지적된다. QHD 디스플레이의 소모 배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 물론 LG전자가 해상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소모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3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하고 전력 소모가 적을 경우 사용시간을 늘려주는 저전압 기술을 적용했다. 하나 G3 이용자들은 "배터리 소모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며 불만족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앱에서는 QHD로 인해 해상도가 높아지며 호환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인기 모바일 게임 '애니팡2'의 경우 한때 해상도 호환성 문제로 화면크기가 작아지면서 터치 영역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은 해상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게임을 즐기기에 문제가 없지만 첫 QHD에 대응하기란 앱 개발사 역시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한각에선 G3의 경우 개인용 보안 솔루션인 '맥아피(McAfee Security)'와의 호환성이 좋지 않아 이를 비활성화하면 반응속도와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G3에서 활성화 돼 있는 맥아피를 비활성시켰더니 반응속도나 발열 문제가 다소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보안 측면에선 다소 약해질 수 있는만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현대차, 브라질 월드컵 응원 티셔츠 배포 현대자동차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고객과 함께 기원하고자 월드컵 응원 티셔츠를 제작, 각종 이벤트를 통해 10일부터 배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제공

ECB 금리 인하, 코스피 상승할까

유럽계 자금 유입 가능성 높아 기대

유럽이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풍부해진 유럽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과거 유럽의 정책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추가 상승했던 점에 시장은 주목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코스피 2050선을 뚫고 올라갈 만큼 강력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동양증권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2011년 12월 4890억 유로 규모의 1차 저금리장기대출(LTRO)와 2012년 2월 5295억유로 규모의 2차 LTRO 도입했을 당시 코스피지수는 이후 20영업일 만에 각각 2.4%, 0.1% 올랐다.

이 기간(2011년 12월~2012년 3월) 국내 증시에 유입된 유럽계 자금은 6조411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매수 10조4830억원의 60%를 웃돌았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유럽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째 경기확장 국면에서 상승 중"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통화량이 늘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오는 8~9월로 예상됐다.

오승훈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책으로 즉각 시행되는 자금이 2900억유로에 달하지만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므로 과거 LTRO만큼 유동성 확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내다봤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유럽계 자금이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감하게 이끌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 연구원은 "당장 2050선을 뚫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엔 어려워보인다"며 "유럽 경기회복으로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한국 증시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드라기 ECB 총재의 노력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

비상걸린 KB금융

회장·은행장 중징계 통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KB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 받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사전통보는 일단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분류해 전달된다. 중징계로 사전통보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 경고 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등이 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감독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임원선임자격 제한을 받는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금융사 인수 등에 제한을 받아 최근 추진 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등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 제재 대상자들에게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한다"면서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도쿄지점이나 카드 정보 유출, KB 내분까지 중요한 건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걸려 있어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KB 사태를 엄정하게 제재해 금융권에 경고를 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김현정기자 hjkim@

지혜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된다면
한 학기에 40만원!

새로운 도약의 시작!

스마트폰 · PC로 수강!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73만 동문 네트워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reams come True

www.knou.ac.kr

2014. 2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학과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가정학과 (가정관리학 · 식품영양학 · 의상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제주도 큰손 '왕서방'을 잡아라

우리·하나·외환은행…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충 경쟁

시중은행들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제주도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센터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투자이민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실제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의 면적은 2억2744만㎡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 1분기 동안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량 또한 73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매입지가 대부분 제주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중국인들의 투자를 유지하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제주지역 중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고객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의 신제주지점에 신설된 중국고객 데스크는 제주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중국 국적의 개인이나 법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별도로 배치됐다.

이들은 원화예금과 해외송금 등 일반적인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투자이민제 등 외국인 국내투자에 대한 상담업무도 진행한다.

특히 금융거래 노출을 꺼리는 중국인 성향을 반영해 외부에서 전용창구로 이어지는 별도 출입문을 만들고, 현지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세미나실을 만들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0년 투자이민제 실행 후 제주지역의 중국인 투자자는 늘어나는 반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창구가 없었다"며 "중국인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의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신제주지점 개점에 이어 2명의 중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또한 제주지역 내 고객기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일 외환은행은 제주지점 내 외국인 직접투자센터(Foreign Direct Investment Center, 이하 FDI Center)를 신설하고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방문, 외환은행 신제주지점 이전 행사를 했다.

'제주FDI센터'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전문 컨설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 FDI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JDC) 김한욱 이사장을 만나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시장에서의 향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한조 은행장은 "신제주지역을 비롯한 제주지역은 연 1000만명의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관광지구"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글로벌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외환은행에 명성에 걸맞는 지역내 최고의 영업점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부실 우선주 퇴출기준 강화

최소 9곳 상장폐지 위기

다음 달 부실 우선주의 퇴출 기준 강화를 앞두고 최소 9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우선주 퇴출 기준 중에서 상장 주식 수와 월평균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

거래소는 강화된 퇴출 기준이 적용될 때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시장 우선주로 대구백화우, 사조대림우, 한솔아트원제지우, 한신공영우, 세우글로벌우, 동양철관우, SH에너지화학우, 아모레G2우B, LS네트웍스우 등 9개를 꼽았다.

아모레G2우B만 거래량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상장주식 수 요건을 미달했다.

이들 종목이 이달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반기 최초 매매 거래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최근 대부분 하한가를 쳤다.

대구백화우, 사조대림우, 한솔아트원제지우, 한신공영우, 동양철관우, SH에너지화학우, LS네트웍스우 등 7개 종목은 지난 2~5일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부실 우선주 퇴출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1년간 상장폐지된 우선주는 종목 수로는 9개, 상장사 수로는 7곳으로 집계됐다. /임한別기자

브라질 축구박물관에 등장한 삼성 커브드 UHD TV 5일 브라질 상파울루 시립경기장 내 축구박물관에 삼성전자가 65인치 커브드 UHD(초고화질) TV 9대를 연결한 원형극장 형태의 쇼케이스를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중계무역 역대 최대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판매하는 상품 중계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계무역 수출은 72억213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17억6910억 달러(32.4%)나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억달러대를 넘어섰다. 연간 중계무역 수출은 2008년 180억9610만 달러에서 지난해 659억2950만 달러로 5년 사이에 2.6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중계무역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 대비 10.7%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근 몇년간 중계무역의 급증은 주로 스마트폰, TV, 세시기 등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단기자

20주년 맞은 임페리얼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메종 페르노리카에서 장 마누엘 스프리에 페르노리카 코리아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영세 디자이너가 '임페리얼 2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경제 회복세 환율이 '관건'

최근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경제회복에 환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4월 소비자판매는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7%로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관건은 환율 하락세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변수로 환율과 소비를 지목했다.

원·달러 환율은 1030선 아래로 또다시 떨어지면서 세자릿수 환율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5원 내린 1013.0원으로 장을 출발해 전거래일 보다 4.3원 하락한 1016.2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원고-엔저가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내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원화 강세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다만 환율이 당분간 세자릿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러당 900원대의 세자릿수 환율은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후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영역이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015~103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 연구원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물량과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파른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미세조정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이 1010~1025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국의 개입 강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10대 그룹 유동자산 250조 넘어

정부 투자 조기집행 요청 재벌 대응 주목

국내 10대 재벌그룹의 곳간에 쌓인 돈이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자 조기집행과 고용 확대를 주문하고 있어 재벌그룹들이 곳간을 열지 주목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재벌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10대 재벌그룹 81개 제조업 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유동자산은 250조7667억원으로 250조원 선을 웃돌았다.

이 수치는 2011년 말 219조1899억원에서 2012년 말 228조3656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이처럼 급증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동자산에는 현금이나 예금, 일시 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이 해당된다.

재벌그룹별로는 삼성,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롯데, 한진 등 5곳의 유동자산이 증가한 반면 LG, SK, GS, 두산, 한화 등 5곳은 감소했다.

삼성그룹의 유동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90조7004억원으로 2년 전보다 35.2% 늘었다. 특히 주력 상장사인 삼성전자의 유동자산은 2011년 말 39조4963억원에서 지난해 말 60조6037억원으로 53.4%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유동자산이 59조4852억원으로 2년 전보다 17.0% 늘었고 같은 기간에 현대중공업그룹(17조7884억원)은 19.7% 증가했다.

롯데그룹(9조1404억원)이 9.7% 늘었고 한진그룹(5조4256억원)은 0.4% 소폭 증가했다.

반면 두산그룹은 이 기간 11조765억원에서 8조4625억원으로 23.6% 줄었든었다.

이어 한화그룹(2조7302억원)이 8.8%, SK그룹(18조2424억원)이 6.2% 감소했다.

GS그룹(9조7764억원)은 1.5% 줄었고 LG그룹(29조153억원)은 0.7% 소폭 감소했다.

/김현정기자 h'(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인테리어 확 바뀐 '더 뉴 C클래스' 9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강남전시장에서 열린 '더 뉴 C클래스(The New C-Class)'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신차를 소개하고 있다. '더 뉴 C클래스'는 2007년 4세대 모델 이후 7년만에 디자인, 인테리어, 효율성 등이 총체적으로 바뀐 모델이다. /연합뉴스

"음성·데이터·문자 구분없이 쓰자"

SK텔링크, '내맘대로 요금제' 출시

알뜰폰(MVNO)에서도 고객 이용 패턴에 따라 음성,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등장했다.

SK텔링크 세븐모바일(7mobile)는 고객 기본 제공금액 내에서 음성, 데이터 및 문자를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맘대로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정액 요금제는 음성, 데이터, 문자 제공량을 정해놓고 음성 통화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거나 데이터만을 대거 이용하는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어선 항목에 대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최근 음성·데이터·문자 이용 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일부 제공한 바 있으나 SK텔링크가 이번에 이를 알뜰폰 시장에 전격 도입하게 됐다.

SK텔링크가 선보인 '내맘대로 요금제'는 2년 약정시 월 기본부담 1만5900원에 음성·데이터·문자를 3만원까지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실부담 금액 대비 약 2배 많은 금액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음성으로만 100% 소진한다면 약 166분, 데이터로만 100% 소진한다면 약 600MB까지 이용 가능하다.

'내맘대로 요금제'는 9일부터 전국 SK텔링크 대리점, 휴대전화 판매점 및 고객센터(1599-0999)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재근 SK텔링크 MVNO사업본부장은 "새롭게 출시한 '내맘대로 요금제'는 고객의 이용 패턴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이나 데이터, 문자를 일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절형 요금제"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요금제와 서비스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알뜰폰 판매 우체국 130곳 추가

연말까지 600곳으로 늘려 통합사이트 구축

우정사업본부는 10일부터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130곳 추가, 총 359곳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알뜰폰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시·군·구 단위 229개 우체국에서 판매해 왔으며 50대 이상 음성통화 위주의 피처폰 사용고객의 주목을 받아 판매 7개월여 만에 10만 가입자를 모집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동안 대도시 위주로 영업을 했으나 농어촌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소재 130곳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성 향상과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판매 우체국을 연말까지 600여곳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우체국이 늘어나는 만큼 알뜰폰 통신사와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지금은 개통여부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합사이트 구축으로 신청부터 개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고객응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판매국 확대에 맞춰 알뜰폰 통신사는 새 요금제도 내놨다. 그동안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피처폰 비중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늘리고 기존 인기 상품인 1000원대 요금제는 유지하면서 기본료 3000원에 음성 50분 기본제공 등 적게 쓰고 적게 내는 요금제를 대폭 강화했다. 또 사용량이 많은 고객을 위해 음성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상품구성도 다양화했다.

이번에 신규 판매하는 상품과 알뜰폰을 취급할 우체국은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의 알뜰폰 안내 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알뜰폰 관련 상담사례에서 전화권유로 가입한 장년층의 피해가 많았다"며 "우체국은 영업이익보다도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를 추천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403@

네이버·대한수학회 수학백과 제작

네이버는 대한수학회와 네이버 분당 사옥에서 수학백과 제작을 위한 업무 협약을 9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네이버와 대한수학회는 향후 3년간 1500여 개의 수학 관련 표제어를 공동 제작한다.

이를 위해 대한수학회 내 20여 명의 수학자로 이루어진 '수학백과 편찬위원회'가 구성되며 편찬위원장은 서울대 수리과학부 김홍종 교수가 맡는다. 총 분량은 단행본 기준으로 4500매 연류이다.

수학백과는 초중고교의 수학 과정을 기본으로 일부 대학 학부 과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내년 중순부터 네이버 지식백과 서비스를 통해 수학백과를 만나볼 수 있다.

대한수학회 김영관 회장은 "수학은 모든 창의력과 과학기술의 근본이 되는 학문인 만큼 제대로 된 수학 콘텐츠는 중요하다"며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수학자대회가 열리는 '한국 수학의 해'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경제 빨간불 켜지나… 성장률 하향조정

전경련 "경제혁신·규제개혁 필요"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등 다른 연구원들도 잇따라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력 산업인 조선·철강·전자·자동차 등의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하반기 세계경제가 더딘 성장을 보이며 상반기와 비슷한 3.4%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신흥국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주택시장 둔화 가능성, 유럽 국가들의 저물가·고실업률 등의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7.5%를 약간 하회하는 7.4%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는 당초 전망치 4.2%보다 0.1%p 하락한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흥국 금융불안 △엔저 심화 △원금액 감소 △세월호 참사여파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미뤄지며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연구원장은 부문별로 민간소비가 2.9% 성장으로 소폭 회복에 그치고, 소비자 물가는 2.0%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원·달러 평균 환율은 작년보다 낮은 1,056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력산업별 전망을 보면 철강 산업은 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의 경기회복 불확실성으로 수요개선이 더딘 가운데 원화 강세 현상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산업은 UHD TV·LED 조명·웨어러블 기기 등 새 트렌드 확산과 유럽 등 선진국 수요 회복 가속화가 전망되지만 스마트폰 마케팅 경쟁 심화와 가파른 원화 강세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예상됐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양호한 판매흐름과 신차출시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폭스바겐 등 글로벌 업계와 경쟁심화·원화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점쳐진다.

조선 산업은 해양생산설비의 내년도 발주 증가 기대감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선 발주량 약세 전환과 해양플랜트 수주 부진이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성장 모멘텀을 잡기 위해 정부차원의 규제혁신과 함께 재정집행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원화 강세 등의 불확실성까지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혁신과 규제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거시경제정책은 성장모멘텀이 지속되도록 현재의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집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태민기자 kss1@metroseoul.co.kr

빅맥 하나 먹는 데 '알바 40분'

일본보다 10분 더 일해야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이 세계 물가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맥도날드의 빅맥 햄버거를 사먹으려면 40분이나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주·일본 등에 비해 10분 이상 더 일해야 하는 셈이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최근 OECD 22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빅맥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OECD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2달러로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10.21달러였으며 프랑스(10.63달러), 벨기에(9.97달러), 네덜란드(9.48달러), 아일랜드(9.01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6.61달러)은 9위다.

반면 빅맥 가격은 3.43달러로 한국은 22개국 중 9번째로 낮았다. 빅맥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는 캐나다(5.26달러), 가장 싼 국가는 폴란드(2.73달러)다.

이를 토대로 빅맥 하나를 사먹기 위해 소요되는 근무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의 근로자는 약 39.5분으로 22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호주가 27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네덜란드·프랑스가 28분이었다. 일본은 29분으로 5위다. 한편 멕시코는 무려 3시간27분을 일해야 빅맥 한 개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근무를 통해 먹을 수 있는 빅맥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도 호주·네덜란드·프랑스·벨기에·일본 등 상위 그룹은 2개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 1.5개를 구매할 수 있는 데 그쳤다. /이국명기자 kmlee@

박경실 파고다 회장 문화재단 출범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박경실 회장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경문화재단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 자녀,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다경문화재단은 전액 박 회장의 재산 출연으로 출발한다.

우선 12억원 상당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매년 5억원씩 3~5년간 현금 출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박 회장은 "35년 교육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이 돈만 버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했다"며 "오랜 숙원이었던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함께 동참한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전통시장에서 로봇 게임 즐겨요 SK텔레콤이 13일 인천 신기시장과 함께 인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능력을 겨루는 '2014 신기시장 로봇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SKT제공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각' 임명

3기 위원회 구성 완료… 현안 처리 속도낼 듯

그동안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임명을 거부당한 고삼석(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9일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가 출범 2개월 만에 모든 구성이 완료됐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야당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이 이날 청와대의 상임위원 임명 재가를 받고 정식 출근한다.

앞서 고 상임위원은 지난 2월 27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 240명 중 찬성 217표, 반대 11표, 기권 12표를 받고 국회에서 추천됐다. 하지만 "일부 경력이 상임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방통위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청와대는 그동안 임명재가를 보류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 기준은 방송·언론·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 교수 이상 직급 15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단체 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이용자 보호활동 15년 이상 경력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고 후보자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3년11개월),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5년4개월), 입법보조원(2년10개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5년2개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시간강사(3년5개월), 겸임교수(1년10개월) 등의 경력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 측과 방통위는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나 객원교수 경력은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 상임위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최성준 방통위원장 외에 여당 추천인 이기주·허원제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 등 4명만으로 구성돼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날 고 위원의 임명 재가에 따라 방통위는 5명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 틀을 갖추게 됐다. 방통위 3기가 제 진용을 갖추면서 그동안 산적한 각종 현안 처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ly0403@

상가시장도 특화 바람… 테라스형 '상한가'

이국적인 분위기 연출, 트렌드로 자리 잡아
테라스 설치 따른 불법요소 없는지 확인을

상가시장에 '테라스'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로 상가 투자환경도 녹록지가 않지만 테라스 상가만은 예외다. 찾는 고객들이 많다 보니 수요자도 늘고, 자연스럽게 공급도 증가하는 추세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에나 들어서던 테라스가 최근 상가에도 잇달아 설치되고 있다. 투자자와 이용객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아 테라스가 상가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면서다.

테라스 상가의 경우 실내공간이 외부로 이어져 동선이 편리하고 점포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실사용 면적이 넓어 탁 트인 느낌을 주고 야외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도 좋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로 입소문을 타는 경우가 많다. 신사동 가로수길, 판교 카페거리, 송도 커낼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멀리 사는 고객들까지 해당 상권의 이용객으로 유인할 수 있어 추가 매출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매출 증가는 자연스럽게 투자자의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테라스 상가는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주변 일반 상가보다 월임대료가 30~50% 높은 편"이라며 "비슷한 돈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몸값도 더 높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커낼워크에 위치한 46㎡ 규모의 수로변 테라스 상가는 현재 분양가보다 1억원 가까이 상승한 8억2000만~8억3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테라스를 갖추지 않은 주변 상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다보니 최근 공급되는 상가 대부분이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국제업무단지(IBD) 3공구에 짓는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상가 저층부에 테라스 상가를 설치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B블록에 선보이는 '디테라스 상가'는 전 호실 스트리트 진입이 가능한 테라스 상가로 조성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 아이파크' 상가 역시 1층 19개 점포에 1.5m까지 전면 여유공간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무턱대고 테라스 상가에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상권과 입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테라스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향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가 전면 부지가 공개공지인데 모르고 테라스를 지을 경우 불법시설물이 돼 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투자 전 반드시 지자체에 불법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 분양

최근 스트리트형 상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34m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에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스트리트형 상가가 분양된다.

길을 따라 들어서는 스트리트형 상가는 개방감이 높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들어서기 때문에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가장 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로 지하 2층~지상 3층에 입점한다. 728실에 달하는 입주민 고정수요와 2만여 명에 달하는 오피스타운 상주인구, 주말 최대 35만~40만 명의 유동인구를 갖췄다.

상가는 연면적 1만3000여㎡ 규모로 점포수만 110개다. 일대 상업시설 중 점포수 기준으로 최대다.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시선형 도로를 통해 전 매장을 전면도로에 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됐다. 상가의 4면이 모두 도로와 접한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2번 출구 앞에 마련돼 있으며, 2015년 3월 입점 예정이다. 문의 02-583-3880

/박선옥기자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12일 분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7-3·4블록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오피스텔이 오는 12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5층, 지상 14층, 전체 1281실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24㎡ 709실 ▲29㎡ 227실 ▲30㎡ 118실 ▲35㎡ 12실 ▲39㎡ 189실 ▲56㎡ 10실 ▲64㎡ 21실로 이뤄졌다.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 위주로 설계돼 실입주민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고자 원룸에서 쓰리룸으로 구성된 7개 타입을 선보였다.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지하 1층 상가가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지구 내 LG(11개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롯데, 이랜드 등 총 55여 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에머드네 연구단지와 프랑스 바이오 기업의 입점이 확정됐다. 중국 대기업과 연구단지 및 업무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등이 함께 계획돼 있다.

여의도공원 2배인 50만㎡ 규모의 보타닉공원도 조성된다. 이곳에는 세계 5번째 크기의 도심형 식물원과 10만㎡의 생태습지, 호수공원, 체험과 휴양을 겸한 세계적인 식물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방건설 마곡지구 대방디엠씨티 투시도.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92-5번지 발산역 8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2016년 10월 입주 예정. 문의 1688-9970

/박선옥기자

한화, 필리핀에 세계 최대 돔 공연장 준공

한화건설이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Indoor Arena)공사를 지난달 30일 준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돔 공연장 공사는 연면적 7만4000㎡에 5만1600여 석 규모로 지붕면적만 3만5948㎡에 달한다. 이는 돔 공연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올림픽체조경기장(1만5000석)의 3배 규모다.

지난 2011년 경쟁입찰로 수주했던 이 프로젝트는 한화건설이 필리핀 최대 건설사인 EEI와 중국 Giangsu International 등과의 경쟁에서 발주처로부터 기술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돔 공연장의 지붕 구조 설계와 시공능력이 관건이었다. 한화건설은 그간 국내외 현장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공사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사는 기술력을 근간으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과정을 전담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0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말 준공됐다.

한화건설 이근포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을 건설하는 이번 공사 준공으로 해외공사 수행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지속적인 토목건축 사업 발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올해 수주 4조2000억원, 매출 4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2015년 해외매출 65%에 달하는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도시 인프라 등의 건설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가치를 부여하자"는 의미의 "Design the World"라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선포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서울 중대형 아파트 서초·용산 '집중'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절반가량은 85㎡ 초과 중대형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노원구와 도봉구는 전체의 10% 수준만 중대형으로 이뤄져 지역별 아파트 면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순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는 전체 8만5528가구 중 약45%에 해당하는 3만8555가구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했다. 이어 ▲용산구(45%) ▲강남구(35%) ▲종로구(29%) ▲송파구(27%) ▲영등포구(26%) ▲양천구(25%) ▲동작구(25%) ▲중구(24%)가 서울 평균(22%)을 상회했다.

특히 강남구는 4만915가구가 중대형으로 이뤄져 비율로는 세 번째였지만 가구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는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의 경우 전체 14만4756가구 가운데 1만3739가구만 중대형으로 9%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도봉구(12%) ▲중랑구(13%) ▲강서구(13%) ▲구로구(14%) ▲강북구(14%)가 뒤를 이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중소형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면적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중대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대비하기 어렵고, 반대로 중소형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균형 잡힌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마니아 전유물 인터넷TV 대중 속으로

아프리카TV '개콘' 등 KBS 콘텐츠 확보
판도라TV 3억명 쓰는 KMP로 친근해져

afreecaTV

마니아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 대중화를 시도하고 있다.

게임, 스포츠, 밀리터리(군사), 먹방(먹는 방송)과 같은 소수의 욕구를 반영한 콘텐츠가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잠재적 시청층이 대폭 늘어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속속 확보하고 있다.

먼저 아프리카TV는 KBS미디어주식회사와 방송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KBS1과 KBS2에서 방영 중인 방송 콘텐츠를 서비스한다고 9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그 동안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나 인기 게임 등을 소재로 BJ(Broadcasting Jockey: 1인 콘텐츠 제작자)들이 펼치는 창의 방송을 서비스해왔다. 앞으로는 전 연령층이 두루 즐길 수 있는 KBS 콘텐츠 등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저변을 확대, 대중화에 힘을 싣게 됐다.

이용자들은 아프리카TV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개그콘서트', '슈퍼맨이 돌아왔다', '1박2일', '빅맨' 등 KBS1와 KBS2에서 방영 중인 인기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 또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BJ나 다른 시청자들과 함께 같은 영상을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판도라TV는 전 세계에서 3억명이 쓰고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 'KM플레이어(이하 KMP)'로 친근함을 더하고 있다.

KMP는 전 세계 230여개국, 36개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글로벌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이다. 10년 전부터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이란, 터키에서 현지화 작업을 해왔고 이제야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최근 등장한 'KMP' 모바일 앱도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면서 미국 IT 매체 씨넷과 해외 다운로드 사이트 '소브토닉'의 '이주의 앱'에 선정됐다.

KMP는 판도라TV의 콘텐츠 소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양한 링크다 주소 복사 등의 방식으로 저변을 넓히는 셈이다.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은 "전 연령대가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중화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이용자 저변 확대, 트래픽 증가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준기자 zen@metroseoul.co.kr

쓰고 듣고 즐기고…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업무처리·충전·음악감상 등 '나만의 개성' 표현 경쟁 가열

안드로이드 전용 액세서리가 IT마니아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에서 누렸던 '나만의 개성'을 안드로이드에서도 누리고 싶은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중 안드로이드 사용자 점유율이 93.4%(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자 주변기기업체들의 제품 출시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문서 작업도 척척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로도 업무처리나 강의 노트 작성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벨킨 QODE 포터블 키보드 케이스'는 블루투스로 간단히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이어리 스타일의 심플한 디자인과 세련된 블랙 컬러가 돋보이며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의 스마트한 활용을 돕는 다양한 기능과 높은 휴대성도 갖췄다. 삼성 갤럭시 탭 3, 갤럭시 노트 8.0, LG G 패드 8.3을 비롯해 구글 넥서스, 킨들 파이어 HD 등 거의 모든 7~8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빠른 충전을 도와주는 벨킨 유니버설 충전기도 유용하다. 이 제품은 일반 충전기의 절반 이하의 시간에 충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기기 보호를 위한 과전압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악 감상도 스마트하게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음악을 보다 크고 선명하게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립스 AS170'은 안드로이드 전용 도킹 스피커로 플렉시독(FlexiDock) 디자인을 적용해 마이크로 USB 커넥터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전 커넥터 위치가 제각각인 다양한 종류의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선명한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도록 네오디뮴 스피커를 탑재했으며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터블 음악 재생을 위한 오디오 인 단자, 알람기능도 유용하다.

◆영화·게임은 큰 화면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에 내려받은 영화·드라마·게임 등을 거실에 있는 큰 TV로 즐겨보면 어떨까. '와이파이 디스플레이(WiFi Display) A2'는 미라캐스트(Miracast) 기능을 통해 안드로이드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TV에 그대로 재현시켜 주는 제품이다. 스마트폰에 있는 실시간 TV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케이블 방송도 대형TV로 바로 볼 수 있다. 특히 영상통화 등에 이용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크게 보면서 고화질로 통화하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벨킨 QODE 포터블 키보드 케이스

필립스 안드로이드 전용 도킹 스피커 AS170

'생각하는 로봇' 드디어 나오나

'튜링테스트' 통과 첫 사례 등장

TURING TEST SUCCESS MARKS MILESTONE IN COMPUTING HIS

/레딩대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드디어 등장했다.

영국 레딩대는 과학적·철학적 의미에서 '인공 지능'의 판별 기준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영국 왕립학회(로열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튜링 테스트 2014' 행사에서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유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기준을 통과했다는 설명이다.

유진은 블라디미르 베셀로프, 유진 뎀첸코, 세르게이 울라센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2001년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첫 버전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유진은 우크라이나에 사는 13세 소년인 것처럼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5분 길이의 텍스트 대화를 통해 심사위원 중 33% 이상에게 '유진은 진짜 인간'이라는 확신을 줬다.

개발자 중 한 사람인 블라디미르 베셀로프는 "13세라는 나이를 감안하면 유진이 뭔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납득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튜링테스트'를 개발한 앨런 튜링(1912~1954) 별세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영국 전산학자 앨런 튜링은 '과연 기계가 생각할 줄 아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계의 사고 능력을 판별하는 '튜링테스트'를 만들어 '인공지능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이국명기자

밴드 게임은 등록심사 없다

오픈 플랫폼 변신 눈길

BAND Games

캠프모바일에 운영 중인 지인 기반 SNS 밴드의 게임 플랫폼 '밴드 게임'이 '오픈 플랫폼'으로 바뀐다.

이에 게임 개발사들은 제휴 공간인 '밴드 파트너스' 페이지(https://partners.band.us/partners/ko/gameMain.nhn)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등록할 수 있다.

지난 1·2차 밴드 게임 출시로 밴드 내 각종 장르의 게임에 대한 밴드 이용자의 니즈가 명확히 확인됐고 개발사들의 좋은 성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발사들로부터 '오픈 플랫폼'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는 게 캠프모바일 측의 설명이다.

캠프모바일 측은 "재미있는 게임을 공급하기 위해 첫 번째로 내린 결정이 '무심사' 원칙이었다. 플랫폼이 임의로 게임을 선택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게임사가 이용자를 만나 선택 받게 하고 플랫폼은 그 결과에 반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손 씻기만 잘해도 식중독 막는다

흐르는 물에 비누 사용…음식물 조리·보관도 신경써야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중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평균 식중독 환자 수 분포는 4월~6월(38%)과 7~9월(31%)에 집중돼 있다. 더욱이 30도가 넘는 기온으로 식중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관리가 예방의 지름길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것이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이 주요 증상이며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원인이 되는 세균성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다.

하지만 식중독은 대개 자연 치유되고 심각한 병이나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이미 식중독으로 구토나 설사가 발생했다면 멎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 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하면 복통이나 불쾌감을 줄일 수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누를 사용하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 사이, 손등, 잘 등을 문질러 닦고 헹궈야 한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만 해도 상당한 세균 제거 효과가 있으며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었을 때는 99.8%의 세균 제거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 조리·보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도움이 되며 어패류 등 제철분 식품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찬 음식은 4℃ 이하에 저장하고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으로 보온해야 한다. 기열 조리식품은 중심부가 74℃ 이상이 되게 1분 이상 가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게다가 조리하는 사람의 손과 조리도구에 의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결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조리 전 반드시 손을 씻고 바늘상(곪은) 상처에는 포도상구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다면 음식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숟가락이나 젓가락, 접시, 도마 등도 끓는 물에 소독해야 한다.

나들이 갈 때는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 장시간 이동 계획이 있다면 김밥이나 샌드위치는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아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의 섭취도 피해야 한다.

김종형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은 "식중독에 걸리면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 공급과 전해질 보충 등이 필요하다. 또 식중독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어 의사의 지시 없이 함부로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먹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무릎 튼튼하게 하는 운동은?

병원치료와 병행해야 효과 높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만 앞설 뿐 선뜻 운동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수영 ▲산책 ▲아쿠아로빅 등이 있다. 특히 병원 치료와 함께 이런 운동을 병행하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자전거가 무릎을 많이 움직여 무릎관절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강약을 조절하며 타는 실내 자전거는 효과적으로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력을 이용해 수중에서 하는 에어로빅인 아쿠아로빅 역시 관절의 부하를 최소화해 무릎관절과 고관절 기능은 물론 다리 근력 심폐 지구력 향상에 좋다. 단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다.

이승용 은평튼튼병원 원장은 "무릎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체중 관리는 물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돼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클로렐라 아이스크림 대상 건강사업본부 대상웰라이프는 '클로렐라 톱브랜드의 골드셀렉션 3년 연속 수상'을 기념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시민들에게 클로렐라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행사를 펼쳤다. /대상웰라이프 제공

더위 이기는 보양약재 어떤게 좋을까

인삼·오미자·구기자 등 몸에 좋아

건강을 챙기는 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보양식, 비타민 함유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중 예로부터 잘 알려진 여름철 보양약재를 소개한다.

◆더위에 지친 신체 기능 회복이 중요

먼저 약재 중 으뜸인 인삼은 여름철에도 쓸모가 많다. 인삼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 음식의 소화흡수를 돕는다. 또 심신불안, 신경과민으로 여성들의 자율신경 기능이 실조됐을 때도 인삼과 대추를 달여 먹으면 효험을 볼 수 있다. 특히 더위로 인해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여름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스태미너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5가지 맛이 있다는 오미자도 여름철 명약으로 꼽힌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오미자를 인삼, 맥문동과 함께 달여 먹는 생맥산을 많이 찾는데 생맥산은 더위에 지치고 에어컨에 노출된 호흡기를 보강하는 작용을 한다.

이와 함께 피로 해소를 위한 구기자도 빠놓을 수 없다. 잎, 열매의 약효가 모두 같은 구기자는 간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피로 해소와 함께 남성의 정력을 돋우는 보양약재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구기자는 베타인·루틴·리놀산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게다가 녹용도 강장 작용의 대표적인 약재다. 혈액을 증가시키고 적혈구의 촉진 작용을 하면서 적혈구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

김남선 영동한의원 원장은 "더위가 시작되면서 보양약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기에게 맞는 보양약재를 선택해 더위에 지친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대한뇌전증학회, 12일 국제학술대회

환자 진단과 치료의 최신 연구결과 발표

대한뇌전증학회(회장 손은익)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제19차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뇌전증 분야의 세계적인 해외 석학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국내 의료진과 함께 뇌전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서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뇌전증의 세계적인 대가인 ▲안드레스 케너 교수(마이애미의대) ▲손은익 대한뇌전증학회 회장(계명의대 신경외과 교수) ▲서대원 성균관의대 신경과 교수 ▲이상은 이화의대 신경과 교수 등은 학술대회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최신 지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간질로 더 잘 알려진 뇌전증은 대뇌겉질의 신경세포들이 갑자기 과흥분하면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 보통 약물을 통해 치료한다.

/황재용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미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똑똑한 며느리 예쁜 손주 든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최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닌가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아닌 직접 찾아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영원씨(5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현장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최성보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검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검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년/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타워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여름날씨 '줄무늬 패션' 눈길 끈다

원피스·티셔츠·신발 심플하고 시원한 멋내기 '안성맞춤'

무더워진 여름 날씨 때문에 마린룩을 연상시키는 스트라이프(줄무늬) 패션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패턴으로 사시사철 사랑 받는 스트라이프 제품은 시원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여름에 특히 선호되는 스타일이다.

신혜정 크로커다일레이디 디자이너실 디렉터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유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스테디셀러 의상을 고르는 것이 좋다"며 "스트라이프 패턴의 원피스나 셔츠는 매년 바나식은 구입하게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면 날씨에 따라 스타일링 하기가 편하다"고 말했다.

스트라이프는 색상, 소재, 길이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오피스 룩, 데일리 룩, 바캉스 룩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원피스는 무더운 날씨 내내 입어야 하기 때문에 몸에 타이트하게 붙는 것보다는 활동성이 강조된 조금은 넉넉한 핏으로 연출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푸른색 계열의 바탕에 비안식 스트라이프가 가미된 색상은 차분하면서도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캐주얼한 원피스와 달리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H라인 스커트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오피스 룩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명한 색감의 립글로스로 입술을 강조하거나 신발, 가방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옷차림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

스트라이프의 대명사 폴로 티셔츠는 깔끔하고 단순한 멋으로 남성들에게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티셔츠 한 장으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청바지와 함께 입으면 댄디한 느낌을 자아내고 세미 수트와 함께 착용하면 격식도 차릴 수 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신발에도 스트라이프가 가미된 제품이 눈에 띈다. 러브 모스키노에서 올여름 선보인 스트라이프 슬립온은 새틴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디자인을 강조했다.

화이트·블루, 화이트·레드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이 신발은 금빛 하트 문양이 포인트로 적용돼 디테일에 한 층 더 신경쓴 것이 특징이다. 반바지나 짧은 길이감의 슬랙스 진과 함께 입으면 여름철 시원한 마린 룩을 연출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kmc0504@metroseoul.co.kr

'놀부' 부대찌개… 왕서방도 "띵호아"

상해 최고 쇼핑지 난징시루역에 1호점 오픈

놀부 부대찌개를 이제는 중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놀부NBG는 지난 5월 중국 외식전문업체 맥 브랜즈(MAK BRANDS)사와 조인트벤처 계약을 맺고, 현지합작법인 맥 브랜즈 앤 놀부 를 설립했다.

놀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합작 체결은 지난 27년간 놀부만의 노하우로 만들어온 캐주얼 한식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대찌개 단일 브랜드 중국 내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첫 성과물로 지난달 23일 놀부 부대찌개의 중국 내 첫 매장 '우강로점'(사진)을 오픈했다. 110㎡(33평) 총 64석을 보유한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 상해 1호점은 하루 수만 명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상해 최고의 쇼핑지 난징시루역에 위치한다.

국내 부대찌개 브랜드로는 첫 해외진출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가오픈을 하자마자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부대찌개 등 생전 처음 접한 중국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그리 크지 않은 매장에서 하루 평균 매출 500만원을 꾸준히 유지해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힘입어 놀부NBG는 올 연말까지 놀부 부대찌개&철판구이 직영점 6개를 오픈하는 등 2019년까지 30개 이상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1초에 하나씩 팔리는 부대찌개 의 명성으로 부대찌개 업종 브랜드를 자부하는 놀부 부대찌개는 중국 매장의 간판·인테리어·메뉴 등 모든 영역을 국내 매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표 한식 브랜드 놀부만의 자부심은 더해 우강로점 역시 한국어 간판으로 설치했다. 여기에 27년의 전통에서 나온 놀부만의 표준화된 운영시스템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근 아시아권에 거세게 불고 있는 'K-Food' 열풍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경진 놀부NBG 전무이사는 "'놀부 부대찌개'는 부대찌개하면 떠오르는 브랜드이자 부대찌개의 또 다른 고유명사라 생각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친숙하다"며 "이제는 적극적인 중국 시장 공략으로 중국인들에게도 놀부 부대찌개의 맛과 매력을 전파하고 한식과 한식사업의 글로벌화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길기자

스타벅스 재능기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9일 여성가족부의 나눔 네트워크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는 취업취약 계층 여성들을 위한 자립형 카페인 '카페 마인'을 재단장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4호점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이날 오픈식을 찾아 (왼쪽부터) 여성인권진흥원 김월구 원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이석구 대표이사, 살레시오 수녀회 송연순 수녀,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여성가족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 스타벅스 박세재 커피마스터가 참석해 축하 커피 건배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제공

강강술래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캠페인

메시지 남기면 50명에게 경품 증정 행사
보양식 한우곰탕 등 인기상품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기원하며 국민들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6월 한 달간 연다.

강강술래는 총 50명을 선정해 흑염자판돈너비아니(1명 2세트)를 증정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5000만 응원캠페인'을 벌인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된다.

전 매장에서는 이른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세트(350g×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g×5팩·15인분)는 3만6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최고기육포' 10봉(50g) 2만5200원 등 인기상품도 30% 할인가로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온 가족이 함께 문화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공연티켓을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실존했던 악명 높은 남녀 2인조 갱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엄기준·박형식·가희 등의 배우들이 열정적인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뜨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정영훈기자 jyms@

이케아 가구는 '지속가능한 삶' 추구

리테일 및 익스팬션의 담당 매니저 나탈리아 한

단독 인터뷰

이케아 그룹 리테일 및 익스팬션의 지속가능성 담당 매니저인 나탈리아 한(Natalia Hahn 사진)이 한국을 찾았다. 올 연말 한국진출을 앞둔 가구 공룡 이케아(IKEA)의 광명 1호점 오픈을 앞두고서다. 나탈리아는 이케아가 표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해 ▲자원와 자원에 대한 자리 실천 ▲가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삶 ▲사회에 대한 좀 더 나은 삶의 제공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그는 "이케아의 제품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케아는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매장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2010 회계연도에 기록한 1㎡ 당 225㎾의 전기사용량을 2013 회계연도에는 15㎾로 감소시켰다. 앞으로는 소비자들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2016년까지 모든 조명 제품을 LED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탈리아는 "현재는 350여 종류의 에너지 절감 제품을 판매 중이며 2020년에는 이 제품들이 전체 이케아 제품의 40%를 차지하고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케아는 이케아 재단(IKEA Foundation)을 통해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케아가 '소프트토이' 판매로 모은 기금은 유니세프(UNICEF)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교육·위생·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된다. 지난 5월 이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이라라온의 한 학교를 직접 방문한 나탈리아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목격하고 "여성들은 커뮤니티에 전가를 제공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끼면서 상당히 높은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케아가 진출한 지역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이케아 호주는 '하트 키즈(HeartKids)'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케아 멤버십 프로그램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각각 5센트씩 하트키즈와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한국에서도 전개된다. 나탈리아는 "지속가능성은 한국에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삶을 살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인 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손진영 기자

뷰티업계, 신예 스타 모델 기용 바람

호기심과 관심 유도, 매출 증진 도움 판단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 여배우나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관례였던 뷰티업계에 '뉴 페이스'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신예 모델을 발탁하는 경우 새롭게 출범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모델과 함께 성장하는 윈윈 효과를 노리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최근 유명 화장품 브랜드는 뉴페이스를 적극 발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더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로 브랜드 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델 전략이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타깃 확장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소연·박신혜 등 유명 여배우가 모델로 활동한 바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은 5월 초 TV 드라마 '상속자들' '갑동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유망주로 평가 받고 있는 배우 김지원을 새 뮤즈로 발탁했다.

지난해 하반기 사명과 브랜드명을 분리하면서 마케팅 전략상 이미지 전환이 필요했던 이 회사는 더 젊은 층까지 소비자 타깃을 확장하기 위해 싱그럽고 건강한 이미지의 김지원을 모델로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엔프라니 또한 5월 초 '엔프라니' '디어 바이 엔프라니' '홀리카 홀리카' 등 3개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패션계에서 활약 중인 신인 모델 최아라를 기용해 눈길을 모았다. 회사 측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진 3개 브랜드의 모델로 동시에 활약해야 하는 만큼 분위기와 헤어컨셉에 따라 색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최아라가 모델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국화장품의 더샘도 아이유에 이어 올해 초 신예 배우로 주목 받고 있는 서예지를 모델로 발탁해 관심을 모았다. 회사 측은 신인 배우 서예지의 청순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더샘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또 깨끗한 도화지 같은 이미지로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모델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런가 하면 신인 남성 배우를 브랜드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명 남성 배우나 아이돌을 쓰는 경우는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다 부드러운 이미지와 저력을 갖춘 신인 남성 배우를 선정해 브랜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아이돌 2PM의 닉쿤이 모델로 활약했던 한불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잇츠스킨의 경우 드라마 '예쁜 남자' '비밀' '밀회' 등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신인 배우 여진구와 5월부터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정혜인 기자

화장품도 '트랜스포머' 시대

새로운 기능 제형으로 변화

최근 트랜스포머 뷰티 아이템이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 제품들은 사용 시 눈에 보이는 모습과 다른 새로운 기능 제형으로 변해 뛰어난 기능은 물론 신선함을 선사한다.

코리아나화장품의 라비다에서 출시한 화이트 솔루션 비타민C 콜라겐 파우더 에센스(사진)는 밀가루처럼 하얀 가루가 얼굴에 닿는 순간 에센스로 변해 가볍게 흡수된다. 물이나 공기, 빛 등의 외부 환경에 노출됐을 때 급격히 파괴되는 비타민C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파우더 제형으로 제작해 피부에 침투되는 전달력을 높였다.

일반적인 오일이나 크림 형태가 아닌 스틱형의 클렌저인 LG생활건강 숨37 미라클 로즈 클렌징 스틱은 다마스크 장미꽃잎이 스틱에 배합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미꽃잎의 발효원액 성분이 피부에 수분감을 준다.

듀크레이의 케라크닐 마스크는 평범한 마스크팩처럼 보이지만 살짝 젖은 피부에 도포한 다음 5분 후 손으로 가볍게 롤링하면 자잘한 알갱이들이 생기면서 스크럽으로 변하는 제품이다.

천연 유래의 미백 성분인 편감국을 담은 한율 편감국 미백 파우더 세럼은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신선 화장품으로 미백 파우더와 세럼을 첫 사용 직전에 직접 섞어 사용하는 겜이 독특한 제품이다.

제주엔 카밍 알로에 아이스크림바'은 벨라나에 의한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가려주는 제품으로 아이스크림 같은 독특한 제형을 가졌다. 제품에는 피부 맞춤 온도계인 시온스티커가 부착돼 냉장 보관 시 하늘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해 최적 사용 시기를 알려준다. /정혜인 기자

"취업 대신 데뷔를 택했죠."

MBC '개과천선' 정혜림 역

김윤서

재벌 2세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 생활하는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자가 되고 또 살인 용의자가 된다. 안방극장에서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캐릭터를 맡은 김윤서는 MBC 수목극 '개과천선'에서 정혜림을 연기하며 새로운 여배우의 탄생을 알렸다.

◆ 김윤서가 정혜림이 되기까지

그가 연기한 정혜림은 재벌 2세 박동현의 '스폰'을 받는 여배우였다. 혜림은 새로운 남자가 생기자 동현에게 이별을 고하고 갈등 끝에 성폭행을 당하면서 거대한 사건에 휩쓸리게 된다. 재벌 2세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여배우라는 다소 민감한 캐릭터를 맡은 것에 대해 부담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짧게 등장하지만 강렬한 캐릭터를 맡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사실 드라마엔 잘 나오지 않는 소재라 마음에 들었어요. 대사들도 강한 경우가 많았지만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민감한 소재인건 분명하니까 연기할 땐 무척 조심스러웠죠. 정혜림이 돈을 받고 동현과의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 당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죠. 또 혜림은 여배우잖아요. 연예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지를 이해하려고 노력 했어요."

그는 성폭행 피해자의 감정을 연구하기 위해 가스파 노에 감독의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을 몇 번이나 반복해 봤다고 했다.

"'돌이킬 수 없는'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니카 벨루치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전 혜림이 되기 위해 특히 그 강간신을 많이 돌려 봤어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영화의 도움을 받았죠. 덕분에 감독님께 '연구 많이 해왔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김윤서는 인터뷰 내내 정혜림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제 '개과천선'에 정혜림이 등장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챙겨보고 있어요. 첫 대본 리딩 때 김상중 김명민 선배랑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 나만의 색깔 찾아가는 중

김윤서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그는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단국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연기에 대한 열망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결국 4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죠. 친구들이 취업계를 제출할 때 저는 배우 생활을 시작했어요. 취업 대신 데뷔를 한 셈이네요."

하지만 20대 중반에 시작한 배우 생활은 그에게 험난하기만 했다.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로 데뷔했지만 곧바로 스타덤에 오르는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윤서는 무명 시절 상업 영화 출연부터 일일드라마 악역까지 차분히 연기 실력을 쌓으며 견뎌냈다. 그는 2010년 김재욱과 함께 출연했던 단편 영화 '빵'에 대해 "즐거운 추억"이라고 말했다. 아이폰으로 촬영된 '빵'은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러닝타임과 대사 하나 없는 감각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실험적인 작품이다.

"촬영 당시 정말 재밌었어요. 감정을 표정만으로 표현해야 해 많은 공부가 됐어요."

이후 김윤서는 드라마를 통해 꾸준히 연기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난해 KBS2 '최고다 이순신'에서 아이유를 괴롭히는 악녀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악역만큼 얼굴 알리는데 좋은 것은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젠 밝고 명랑한 캐릭터도 해보고 싶다"며 "시트콤에 욕심 난다"고 말했다.

"혜림이처럼 바닥을 치는 역할은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억누르고 참는 그런 감정들이요. 6부 엔딩신 촬영 때 (김)명민 선배가 '가끔씩 넘치는 것보단 모자라는 게 좋을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선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큰 한 방을 찍기보단 저만의 색깔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 재벌2세 스폰받는 여배우 캐릭터
> 민감한 소재라 연기할 땐 몰입
> 무명 딛고 뜨는 여배우 대열 합류

/김지민기자
사진/ 디자인/

싸이표 음주가무 전세계 강타

걸스데이 여름 시즌송 컴백

걸그룹 걸스데이(소진·유라·민아·혜리·사진)가 스페셜 여름 시즌송으로 다음달 컴백한다.

9일 소속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측은 "걸스데이가 오는 7월 14일 프로듀서팀 이단옆차기의 손잡은 스페셜 시즌송으로 컴백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 앨범은 7월 9일 걸스데이 데뷔 4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기획된 앨범"이라고 밝혔다.

걸스데이는 지난 2010년 7월 9일 '갸우뚱'으로 데뷔해 지난 2014년 1월 3일 발표한 '썸씽'이 상반기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앨범은 '썸씽' 이후 6개월 만의 신곡 발표다. '썸씽'의 프로듀서팀 이단옆차기와 또 다시 손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소속사 관계자는 "미니로 발매될 이번 앨범은 데뷔 4주년 기념이자 여름 특집으로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특히 걸스데이는 앨범 발표와 함께 팬에게 받은 사랑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돌려드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걸스데이의 유라는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중이며 혜리는 SBS MTV '더쇼'의 MC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순호기자

싸이의 새 글로벌 프로젝트 '행오버'에 미국 빌보드도 즉각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빌보드는 '행오버'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9일 이를 집중 조명하는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빌보드는 "도미노처럼 술잔 쓰러뜨리기, 와일드한 노래방, 당구장에서의 쿵푸, 소용돌이치는 댄스비트, 그리고 스눕독이 있다"며 뮤직비디오를 간략한 키워드로 정리했다.

이어 "이런 것들은 5분여 분량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일부 익살스러움에 불과하다. 아래의 재미있는 뮤직비디오를 살펴봐라"며 뮤직비디오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5분6초 길이의 뮤직비디오는 '행오버'라는 곡 제목에 맞게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코믹하게 붙여냈다. 싸이와 미국의 유명 힙합 뮤지션 스눕독이 편의점에서 숙취 음료와 삼각 김밥을 먹는 모습, 폭탄주를 만들거나 '러브 샷'을 하는 모습, 사우나를 찾은 모습, 인천 월미도의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 노래방에서 춤추며 노래 부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미국 ABC의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에 스눕독과 함께 출연한 싸이는 스눕독과의 협업 과정 등을 소개했고 지미 키멜, 스눕독과 LA의 한 가라오케로 이동해 '강남스타일'을 함께 부르고 말춤을 추는 등 즐거운 광경을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싸이는 스눕독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게 된 데 대해 "내가 전화로 요청했다"고 한 뒤 "서로 아시아와 미국에 따로 떨어져 있어 각자 파트를 만들고 전화와 인터넷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처음 만났고, 스눕독은 한국에서 18시간 동안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촬영을 진행했다며 코믹한 결과물 이면의 고충을 털어놨다.

신곡 '행오버' 뮤비 조회수 급증… 미국 빌보드도 즉각 반응

싸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빌보드 기사 /빌보드 홈페이지 캡처

싸이와 스눕독, 지미 키멜은 이후 스튜디오에서 LA의 한 가라오케로 이동해 자리에 있던 팬들과 '강남스타일'을 함께 부르고 말춤도 췄다.

한편 '행오버' 뮤직비디오는 한국 특유의 음주문화를 코믹하게 그려 눈길을 끈다. 공개 후 9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300만 건에 육박했다. 세계적인 뮤지션 스눕독을 비롯해 빅뱅의 지드래곤, 2NE1의 씨엘이 뮤직비디오에 함께 출연했다.

싸이는 또 '행오버'에 이어 음어를 새 싱글이자 타이틀곡 '대디'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연희 '조선명탐정2' 주연

배우 김명민, 오달수, 이연희(사진)가 영화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의 속편 '조선명탐정: 놉의 딸'에 출연한다.

배급사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는 "전편에서 마성의 콤비 연기로 웃음을 준 김명민과 오달수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최근 '구가의 서'와 '미스코리아' 출연을 계기로 '여배우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는 이연희는 치명적인 매력의 팜므파탈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조선명탐정'은 조선 제일의 명탐정이 특유의 능청스러움과 재치를 무기로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을 파헤치는 탐정극이다. 2011년 설 연휴에 개봉된 전편은 당시 47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했다. 속편은 이달 크랭크인해 내년 설 개봉된다.

배급사는 "김석윤 감독이 전편에 이어 다시 연출을 맡았다. 더 커진 규모와 탄탄한 드라마로 전편을 뛰어넘는 화려한 볼거리와 모험,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덤덤했지만 결국 울었죠"

거미 4년 만에 새 앨범 발표
타이틀곡 애잔 눈물샘 자극

거미가 9일 열린 쇼케이스에서 열창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o

한국 여자 R&B 대표주자 거미가 돌아왔다. 지난 2010년 4월 발표한 미니앨범 '러브리스' 이후 4년 만이다.

거미는 9일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앨범 '사랑했으니… 됐어'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현재 내 상황,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음악을 담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날 거미는 '사랑했으니… 됐어'와 '사랑해주세요'를 열창했다. 섬세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돋보였다. 타이틀곡 '사랑했으니… 됐어'에 대해 그는 "다른 장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슷한 장르도 아닌, 두 가지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음악을 시도해 봤다"며 "타이틀곡 멜로디와 가사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했다"며 "발라드지만 울고 불고 하기 싫었다. 덤덤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울게 되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거미가 정규앨범이 아닌 미니 앨범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그는 "사실 정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힘들게 만든 곡들이 누구에게 들려지지도 않고 묻히는게 안타깝고 싫었다"며 "정규 앨범이 가수 본인들에게만 의미있는 일이 돼 버렸다. 그래서 요즘 가수들이 싱글 형식으로 신곡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그런 이유로 미니앨범으로 작업하게 됐다. 이번 곡들을 통해 대중이 내 음악을 어려워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타이틀곡 '사랑했으니… 됐어'는 작곡가 김도훈과 휘성이 가사를 지어 완성된 곡이다. 마지막이 고백하는 듯 하면서도 절규하는 듯한 드라마틱한 감성을 표현했다.

거미는 10일 각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앨범 '사랑했으니… 됐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ysw@

SBS 새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공효진 /지티엔터테인먼트 제공

KBS2 새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지현우·정은지 /제이와이드컴퍼니 제공

'사랑'으로 뜨거운 '여름 안방'

복수·추리 대신 멜로…'유혹' '괜찮아 사랑이야' '트로트의 연인'

올 여름엔 멜로 드라마가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쓰리데이즈' '신의 선물-14일' 등 심리·추리 같은 독색 있는 장르물이 눈에 띄던 상반기와 다른 경향이다.

SBS는 새 월화극 '유혹'(가제)을 편성했다. 복합 장르물인 '닥터 이방인'의 후속 작이다. 작품은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가 매혹적인 제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권상우와 최지우는 '유혹'으로 드라마 '천국의 계단' 후 11년 만에 재회한다. 극 중 권상우는 자석훈 역을 맡았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두뇌만으로 명문대에 진학한 수재다. 그러나 빚 때문에 벼랑 끝에 서게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 최지우는 유세영 역으로 출연한다.

후계자 수업을 받아 그룹을 이끄는 철의 여인이다. 사랑과 결혼에 관심 없던 그는 홍콩 출장에서 우연히 자석훈 부부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믿지 않던 그녀의 삶은 변화한다.

SBS 새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는 배우 조인성·공효진, 노희경 작가의 조합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다. 성장 수사극 '너희들은 포위됐다'의 후속으로 방송된다. 작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다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릴 예정이다.

조인성은 작품에서 완벽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지닌 인기 추리소설가 겸 라디오 DJ 장재열 역을 맡았다. 공효진은 겉으로는 지극히 시크하지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 많은 정신과 의사 지해수를 연기한다.

KBS는 오는 23일 새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을 방송한다. '한 남자의 복수를 다룬 '빅맨'의 후속 작이다. 지현우·정은지가 출연한다.

지현우는 최고 스타 아티스트 장준현을 연기한다. 그는 외모부터 음악성까지 모든 걸 갖췄지만 안하무인 성격을 지녔다.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는 트로트의 여왕으로 성장할 최춘희 역을 맡았다. 최춘희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소녀 가장으로, 트로트 가수였던 엄마의 재능을 이어 받은 차세대 트로트 꿈나무다. 작품은 트로트에 인생을 건 최춘희가 트로트를 경멸하는 최고 스타 장준현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코미디 드라마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박찬욱 '박쥐' 모티브 소설 영화화

'테레즈 라캥' 내달 개봉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박쥐'의 모티브가 된 소설을 영화화한 '테레즈 라캥'이 다음달 10일 개봉된다.

'테레즈 라캥'은 에밀 졸라의 동명 스테디셀러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욕망과 삶을 모두 억압당한 채 살아 온 테레즈가 남편의 친구 로랑과 위험한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테레즈 역은 '마사 마시 메이 마릴렌'으로 각종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고질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출연해 할리우드가 가장 주목하는 여배우로 떠오른 엘리자베스 올슨이 맡았다.

로랑 역은 오렌 월계의 '인사이드 르윈'으로 전미 비평가협회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오스카 아이삭이 연기했다. 테레즈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병약한 남편인 카미유 역에는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말포이 역으로 전 세계 관객의 눈도장을 받은 톰 펠튼이 캐스팅됐다.

/박한준기자 hjn3427@

테레즈 라캥

김준수 치명적 매력의 드라큘라

뮤지컬 '드라큘라'에 출연하는 김준수와 류정한이 치명적인 매력의 드라큘라로 변신한 모습을 공개했다.

극중 주인공 드라큘라 백작을 맡은 이들은 9일 공개된 사진에서 드라큘라 특유의 냉철하고 강렬한 모습과 사랑을 위해 뱀파이어의 삶을 선택한 슬픔을 함께 표현했다.

그러나 김준수와 류정한은 각각 '열정' '야심' '모던' '부드러움' '중후함' '클래식'을 주제로 잡아 캐릭터를 차별화했다.

신춘수 프로듀서는 "배우들의 캐릭터 해석이 다르다 보니 촬영장에서 즉석으로 콘티가 바뀌었다.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등을 준비해 온 배우들도 있어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 소설가 브램스토커의 동명 소설 '드라큘라'가 원작인 이 뮤지컬은 2004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다. '지킬앤하이드'의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과 연출가 데이비드 스완이 참여했다.

'드라큘라'는 다음달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다. /박선현기자

뮤지컬 '드라큘라'의 류정한

뮤지컬 '드라큘라'의 김준수

걸그룹 멤버 연기로 영역 확대

초아·전효성 드라마 속 또다른 매력 기대

아이돌 가수들이 음악을 넘어 연기로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과거 가수 활동의 한계를 느낄 때 연기자로 변신을 꾀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가수 데뷔와 함께 연기 공부를 병행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덕분에 과거 있었던 아이돌 연기력 논란은 사라지고 있다. 이에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걸그룹 크레용팝 멤버 초아는 KBS2 새 드라마 '하이스쿨-러브온'에서 처음 연기를 선보인다. 소속사 관계자는 "초아가 바쁜 스케줄 중에도 꾸준히 연기수업을 받아 기본기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초아는 서울예술대 연기과에 재학 중이다. 노래는 물론 연기에 대한 열정이 그간 남달랐다. 그가 크레용팝 이미지를 벗어나 배우로서 어떠한 매력을 보여줄 지 관심사다.

또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도 KBS1 '고양이는 있다'로 지상파 드라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지난 4월 종영한 OCN 형사드라마 '처용'을 통해 슬픔을 간직한 여고생 귀신 한나영 역을 맡아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전효성은 9일 첫 방송된 KBS1 일일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에서 밉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악녀 한수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크레용팝 초아

시크릿 전효성

걸그룹 씨스타의 보라는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 탈북자 출신 이향이를 맡아 털털한 이미지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레인보우 멤버 고우리는 SBS 주말드라마 '기분 좋은 날'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평범미인 한다인 역을 맡아 열연을 하고 있다. 평소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솔직하고 까칠한 매력으로 남심을 흔들고 있다.

/정성월기자 ysw@

잘 질 수 있는 기업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지난 주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청춘나이트 콘서트 2014'가 열렸다.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김건모, 클론 강원준, 현진영, DJ DOC 등이 출연해 주말 저녁을 뜨겁게 만들었다. 콘서트 장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팬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20년 가까이 된 노래에 환호했고, 어느 새 훌쩍 늙어버린 가수의 입담에 기꺼워했다. 가수들은 오래 전 신명을 담아 토했던 무대를 복원시켰고, 자신들을 향하는 갈채에 다시금 빠져들었다. 22년째 김완준 이란 패킷(packet) 하나만으로 콘서트의 가치와 의미가 가늠됐다.

박인비가 LPGA투어 '매뉴라이프 클래식'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마지막 날 경기에서 코스레코드를 기록한 끝에 통산 10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녀는 지난 해 거짓말 같은 경기 능력을 보여주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지난 주 59주 만에 왕좌를 내어줬을 땐 '홀가분하다'고 까지 밝혔고 어제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우승이 없는 동안 눈을 돌린 팬을 아쉬워 하기보다 여전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팬에게 감사해 했다. 이번 우승의 배경에는 68홀 노 보기(No Bogey)가 있다. 잃지 않는 능력, 자기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셈이다.

중국은 거대시장으로 꼽힌다. 인구수가 결정적이고,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자본주의 계책를 접목시키는 시도가 세계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 기업 역시 중국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 쏟아 부은 자본은 제주도를 사고도 남을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 돈을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벌고 있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축소 중이다. 애초에 시장 가치를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도 있고, 시장을 너무 모르고 달려들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내수시장이든 해외시장이든 성과를 얻으려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자기기능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을 탓하는 것으로 시간을 쓰면 서서히 망하는 것 외에는 얻을 게 없다.

지더라도 잘 질 수 있는 기업, 철퇴를 맞더라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 간절하다.

/ www.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3			
		3	5			6		
1	4					3		
	7	5	8					
	9		6		2		4	
					5	7	1	
		4					7	6
		9			1	5		
			9		4			8

	4							1
9					2		7	4
7		3	8		1			
					3	4		2
	6						3	
8		7	2					
			3		7	6		8
6	5		9					3
3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시 스도쿠 라이트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농업직 공무원 준비 잘될까요 일반회사 취직, 미련 버리세요

오로라 여자 89년 5월 15일 음력 새벽 1시 50분

Q 농업직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연봉을 적게 받아서 비굴구라이라 불기기 힘듭다며 주위 사람들이 계속 만류합니다. 차라리 직업을 바꾸던지 아니면 그냥 일반회사로 취업하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A 정화(丁火)사주 오월(午월)에 태어나 목(木)을 두었으니 건록용재격으로 나이 들수록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소쉬주옥(아름다운 구슬을 뒤에 따음)이라 하여 세상을 모르는 순수함이 있고 자존, 주위가 산관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인데 세상에는 소득도 있고 공짜도 있지만 겉보기에 공짜는 매우 쉽게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짜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치러야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결과를 얻기 전에 결과를 놓고 책임져야 할 목표를 먼저 정하여 세월을 보내기가 쉽지 않으니 꼭 분발해보세요. 공식으로 보면 2017년이 지나야 할 터이다 어느 사회분야든 안하려면 7월 취직을 하십시오. 취직하면 미련을 완전히 깨리십시오.

경리직종 스트레스 많아 걱정 외국어 공부 – 때를 기다리세요

황금의 기록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저녁 8시경

Q 가끔 길에서 동전을 줍는데 그러면 꼭 돈이 새나가는데 어떤 연관이 있나요? 사무경리인데 남자가 해야 하는 일들을 시켜서 몸에 무리고 스트레스로 몹시 변비가 되어있고 어깨가 굳어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목이 뻐) 딴 곳에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다닐까요?

A 길에서 동전을 줍는 것은 그날의 복을 다 써 버리는 것이 된다는 말이니 쓰지 말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세요. 좋이 생수는 바위 철산으로 황금성이 많고 인정이 많은데 생일에 장생(長生)을 놓아 어지간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인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다소 고생스러운 관인(官印)과 비견(比肩)의 조합은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융통성이 부족한 속성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달라 방향을 찾기가 어려우니 외국어 공부하면서 능숙해질 때 그때 다시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바꾸던지 언제 든 지 다시 상담하세요. 51세부터 다소 주변 환경이 편안하게 설정되니 틈틈이 앞으로는 건강 유의하면서 지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듣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0일 (음 5월 13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60년생** 결점 보완하는 데 신경 써라. **72년생** 사람들 비위 맞추다 지친다. **84년생** 사교모임에 가면 개성을 마음껏 보여주라.

소: **49년생** 남의 일보다 집안부터 챙겨라. **61년생** 모처럼 옷을 얻어 생긴다. **73년생** 기분 따라 감정표현 않도록 조심~ **85년생** 원하던 일은 어렵게 성사가 된다.

호랑이: **50년생** 돈이 마음을 흔든다. **62년생** 아픔을 조였던 일이 잘 풀려 좋~ **74년생** 친구와 돈 문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86년생** 좋은 일 뒤 돌발사고 조심할 것.

토끼: **51년생** 마지막 공을 향해 뛰어라. **63년생**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징조 보인다. **75년생** 장거리 운전 때 안전사고 조심~ **87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용: **52년생** 위기 닥치면 우쭉이 보인다. **64년생** 부하의 말이 좀 늦어도 닦달하지 마라. **76년생** 결과는 미흡하나 고생은 헛되지 않는다. **88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즐거운 비명~

뱀: **53년생** 아름다운 자신을 잘 하라. **65년생** 함께 울었던 사람은 못 잊는다. **77년생** 고민한 일은 영감이 떠올라 해결. **89년생** 울 때 울지 않으면 뒤에 탈이 난다.

말: **42년생** 말만 앞세워선 신뢰 못 얻는다. **54년생** 뜻을 이루려면 기대를 낮춰라. **66년생** 김X과 후회 교제하는 날이다. **78년생** 오늘만은 귀 닫고 나만의 방식대로 하라.

양: **43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기본 지켜라. **55년생**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 **67년생** 운세가 별로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79년생** 무리하게 추진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원숭이: **44년생** 자손이 생각도 못한 경사가 생긴다. **56년생**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결과도 좋은 법~ **68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드디어 듣는다. **80년생** 애정문제로 피곤한 하루~

닭: **45년생** 입맛이 없어도 식사 꼭 챙겨라. **57년생** 어려움은 가고 기쁨이 찾아온다. **69년생**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려우니 자신감 가져라. **81년생** 궁하면 통한다.

개: **46년생** 따뜻한 말 한마디 보약이 된다. **58년생** 결심을 했으면 과감히 추진하라. **70년생** 원하던 사람을 얻어 자신감이 넘친다. **82년생** 즐거운 데이트에 휘파람이 절로~

돼지: **47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조심~ **59년생** 작은 일은 빈틈 올리받는다. **71년생** 친구 간에 사소한 것은 너무 따지지 말라. **83년생** 작은 만은 웃을 얻어 생긴다.

'신들린 퍼팅' 박인비 부활

LPGA 시즌 첫 우승… 세계랭킹 1위 탈환 발판 마련

움츠렸던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깨어나면서 세계랭킹 1위 탈환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인비는 9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의 그레이 사일로 골프장에서 열린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의 퍼팅 감각은 최고였다.

LPGA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우승한 박인비.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4월 당시 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째를 챙기면서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박인비는 이후 메이저대회 2개를 포함해 4승을 추가하면서 독주 체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동안 굳건하던 박인비의 아성은 지난해 6월 US여자오픈 이후 LPGA 투어에서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올해 3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맛봤지만 LPGA 투어에서는 대회 기간 식중독 증상에 시달린다거나 1년 만에 컷탈락의 쓴맛을 보는 등 지난해 같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사이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꾸준한 경기력을 뽐내며 박인비는 여러 번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주 1위 자리를 내줬다.

세계랭킹 1위에서 내려오면서도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력에 집중한 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의 기억을 되살려 무서운 샷 감각과 퍼트를 되찾았다.

비디오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의 퍼트 스트로크 등을 떠올리며 경기에 임했다는 그는 특히 마지막 4라운드에서 퍼트 수를 25개까지 떨어뜨려 버디를 10개나 쓸어담았다.

그러나 이번 우승에도 박인비는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되찾지 못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은 최근 2년간의 성적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출전 대회 수로 나눈 포인트로 갈리는데 대회마다 배점이 다르고 최근 13주 이내 대회에는 가산점을 주는 등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이저대회에 더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만큼 19일부터 열리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1인자' 경쟁은 한 차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메이저대회 3연승'이라는 기록을 남긴만큼 박인비가 어떤 성적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S오픈 코스는 제 스타일과 잘 맞는다. 좋은 성적을 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박인비가 이 대회에서 '골프 여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라파엘 나달이 프랑스오픈 우승 트로피를 끌어안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나달 프랑스오픈 5연속 우승

나달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에 3-1(3-6 7-5 6-2 6-4)로 승리했다. 나달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프랑스오픈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이다.

나달은 2005~2008년 이 대회를 4연패해 프랑스오픈에서만 9개의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한 선수가 특정 대회에서 9차례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것도 나달이 처음이다. 그는 프랑스오픈에서 이날 결승전까지 35연승을 달렸고 통산 전적 66승 1패를 기록하는 절대 강세를 보였다.

메이저 대회 통산 14번째 우승을 일궈낸 나달은 은퇴한 피트 샘프러스(미국)와 함께 메이저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공동 2위에 올랐다. 이 부문 1위는 17차례 정상에 오른 로저 페더러(스위스)다. /유순호기자

류현진 퍼펙트의 꿈 다시 한번

12일 신시내티와 재대결…5연승 시즌8승 도전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신시내티 레즈의 에이스 조니 쿠에토와 16일 만에 재대결을 벌인다.

9일 MLB닷컴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10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리는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 양팀은 류현진과 쿠에토를 선발로 예고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쿠에토와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당시 경기에서 류현진은 7회까지 퍼펙트 행진을 벌였고 7⅓이닝 동안 사사구 하나 없이 3안타만 내주고 3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은 쿠에토와 맞붙어 2연승을 따냈고 이후에도 절정의 구위를 보이며 연승을 이어갔다. 당시의 기분 좋은 경기를 떠올리며 류현진은 5연승과 시즌 8승에 도전한다.

이번에는 구장을 바꿔 대결한다. 류현진은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에 처음 등판하게 됐지만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이고 있어 또 한 번 호투가 기대된다. 류현진은 올 시즌 6차례 원정경기에 나와 5승 무패, 평균자책점 0.95를 기록 중이다.

그레이트아메리칸 볼파크가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기는 하지만 신시내티 타선은 팀 타율 0.237로 내셔널리그 15개 구단 중 12위에 처져있다. 최근 12경기에서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3.75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다저스의 타선이 주전의 슬럼프와 부상으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어 승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쿠에토 역시 만만치 않은 투수라 다저스 타선이 제대로 공략할 지는 미지수다. 쿠에토는 올 시즌 13경기에 출전해 5승 5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 중이다. 5차례 승리 중에는 2번의 완봉승과 1번의 1실점 완투승이 포함돼 있을 만큼 마운드 운영 능력이 빼어나다.

/유순호기자 sunn@

막내 NC 돌풍 비결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9번째 구단 NC 다이노스가 잘 나가고 있다. 선두 삼성에 2경기 뒤진 2위, 3위 두산에 4.5경기 앞서 있다. 창단 3년째, 1군 리그에 뛰어든 지 단 2년째의 놀라운 성과이다. 역대 신생구단 가운데 가장 빠르게 강팀으로 성장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거론되는 이는 김경문 감독이다. 이질적인 선수들을 모아 뜨거운 가마솥 야구로 결집시켰다. 야구에 대한 끊임없는 투지와 열정을 강조하면서 선수들이 겁 없이 야구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었고 박민우·나성범 등 신인들의 성장을 이끌어냈다. 실수는 용서해도 태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전략과 전술에도 능해 선수들에게서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확보했다.

두 번째는 선수단 내부의 활력이다. 겁 없이 야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다른 팀과 색다른 활력이 뿜어져 나온다. 경기 전 훈련부터 소리지르고 경기 중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한다. 베테랑 타자 이호준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야구를 한다. 쉽게 포기하는 지리멸렬한 약자와는 다르다.

프런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NC는 선수보강, 외국인 선수, 신인 스카우트, FA 영입 등 창단 전력구성이 탄탄했는데 프런트의 힘이 컸다. FA 이호준, 이종욱, 손시헌의 영입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호준은 팀의 구심점이 되었고 이종욱과 손시헌은 공수의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 선수협회 문제로 야인으로 떠돌던 박충식 운영팀장 영입도 프런트의 작품이었다. 이호준은 동계 당시 선수회장 박재홍을 움직여 사면을 받아냈고 귀중한 불펜 보강으로 이어졌다.

야구기자 출신인 이태일 사장의 안목과 배석현 단장의 추진력이 절묘했다. 이 사장은 해박한 야구지식과 인맥으로 전력구성의 핵심을 짚어냈고 배 단장은 IT업계 출신답게 특유의 빠른 일처리로 강한 야구를 빚어냈다. 유능한 야구프런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모범사례였다. /OSEN 야구전문기자